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1.3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AI 수익화 논란..마이크로소프트 급락

-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 나스닥 -0.72%, 다우 +0.11%
-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부담, 주가 10% 급락
- 미국 지난해 11월 무역적자 급증..4분기 GDP 성장률 전망 하향

Summary

1월 2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함.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0.72% 하락한 23,685.12에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1% 상승한 49,071.56을 기록했으며 S&P500 지수는 0.13% 하락한 6,969.01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05% 소폭 상승. 마감을 앞두고 전방위적 저가 매수세가 유입. 전날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핵심 성장 동력인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오픈AI에의 높은 계약 의존도 등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커지며 10% 급락. 반면 메타는 긍정적인 1분기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10% 이상 상승. 주요 경제지표로는 2025년 11월 무역수지가 발표됨. 무역 적자 규모가 568억 달러로 전달 대비 94.6% 급증.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고 의약품 반입이 증가한 반면 수출은 감소한 영향인데 급증한 무역적자 규모를 반영해 애틀랜타 연은은 GDP 나우 모델을 통해 추정하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이전 추정치 대비 1.2%포인트 하향한 연율 환산 기준 4.2%로 제시.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WTI가 3% 급등.

(다우 +0.11%, 나스닥 -0.72%, S&P500 -0.13%, 러셀2000 +0.05%)

특징종목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9.99%)가 급락. 이 날 하락으로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3,570억 달러 증발함. 지난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으로 기록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문제가 됐던건 막대한 AI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4분기 데이터센터 중심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고 밝혔음. 반면 핵심 성장 동력인 애저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여기에 향후 클라우드 계약 잔액 6,250억 달러 중 약 45%가 오픈AI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재부상함. 바클레이즈는 “투자규모가 너무 커진 만큼 이제 시장은 투자 자체보다 얼마나 빠르게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느냐에 집중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소시에테제네럴은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노출도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지적. 마찬가지로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서비스나우(-9.94%)도 급락. 발표된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지만 컨센서스 상회 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AI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여타 소프트웨어 관련주 동반 약세. 모건스탠리는 “서비스나우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공급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AI 때문에 고조된 상황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성장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 부족하다”고 평가. 아틀라시언(-10.67%), 데이터 도그(-8.81%), 세일스포스(-6.09%) 등의 관련주가 동

반 하락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ETF인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sector ETF(IGV)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성장 기술주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자 아이온큐(-5.59%), 퀀텀 컴퓨팅(-8.54%), 리게티 컴퓨팅(-9.81%), 디 웨이브 퀀텀(-7.01%) 등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동반 하락. 반면 메타 플랫폼스(+10.40%)는 전 거래일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 힘입어 급등. AI 관련 투자가 막대한 규모이긴 하지만 AI에 힘입은 광고 매출 급성장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18.65%)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 시장 내 EPS 전망치 상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18.70%) 역시 가파른 이익 성장세와 비용 절감, 향후 사업 구조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 애플(+0.72%)은 장 마감 이후 아이폰 매출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소폭 상승. 샌디스크(+2.21%)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는 중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기술 성장주 약세 분위기가 위험 회피 움직임으로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 재료가 됐으나 증시 낙폭 축소와 맞물려 채권 금리 하락 폭도 제한적. 2년물 금리가 1.4bp 하락했으며 10년물 금리도 1.2bp하락. 다만 30년물 금리는 약보합 수준에 머무름. 달러인덱스는 96.22로 소폭 하락. 유로/달러는 1.197달러로 0.13% 상승했고 달러/엔은 153.12엔으로 0.19% 하락해 달러 약세를 반영함. 상품 시장에서는 WTI 기준 국제유가가 3% 상승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 금 현물 가격은 장 중 온스당 5500달러를 넘기는 등 랠리를 지속하다 반락. 은과 구리 등은 강한 상승세 지속.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